

치위생(학)과 학생의 특성에 따른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

박보영, 윤미숙*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The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Dental Hygiene Students

Bo-Young Park, Mi-Suk Yo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22년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전국 치위생(학)과 학생 194명에게 일반적 특성과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의 각 항목별로 중요도를 설문하였으며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내재적 직업가치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였고, 외재적 직업가치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직원들 간의 인간관계 또는 직장 분위 기였다. 외재적 직업가치의 중요도는 내재적 직업가치의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치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직업의 미래 전망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희망진로가 치과의료기관인 경우는 치과위생사 역량 발휘 가능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여학생은 휴식 지원 복지혜택과 고용의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희망진로에 따라 급여, 근무시간, 교육지원 복지혜택, 휴식지원 복지혜택, 규모와 인지도, 성과제도 중요도의 차이가 있었다. 신입 치과위 생사를 고용하는 치과의료기관은 예비 치과위생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직업가치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differences in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when considering general characteristics. Totally, 194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surveyed from February to May 2022. We examined the importance of each factor pertain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Our results reveal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s were aptitudes and interests for intrinsic work values, and work atmosphere was the leading factor in extrinsic work values. The importance of extrinsic work values was relatively higher than intrinsic work values. Subjects with part-time dental experience recognized the future prospects of their profession as critical, whereas those awaiting employment in dentistry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demonstrating the competency of a dental hygienist as important. Moreover, crucial factors recognized by female students were welfare benefits for rest support and safety of employment; differences were also obtained in extrinsic work values when dentistry was considered as a future career. Based on our study results, we propose that dental clinics looking to hire new dental hygienists need to consider and give importance to the work values recognized by prospective dental hygienists and make efforts to create a working environment that reflects their needs.

Keywords : Dental Clinic, Dental Hygienist, Dental Hygiene Students, Extrinsic Work Values, Intrinsic Work Values

*Corresponding Author : Mi-Suk Yoon(Shinhan Univ.)

email: news9090@naver.com

Received August 25, 2022

Accepted December 7, 2022

Revised September 27, 2022

Published December 31,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직업가치는 직업선택 시 고려되는 개인의 태도와 신념으로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내재적 직업가치에는 자기실현, 일을 통한 성취, 창의성 등이 포함되며[1], 외재적 직업가치는 경제적 보수, 근무 조건, 명예, 안전성 등이 해당된다[2]. 직업가치는 개인의 특성이나[3]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며 가족, 학교, 환경뿐 아니라 사회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게 된다[4].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 시기의 직업가치는 취업준비 행동, 전공 만족도, 첫 직장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5,6].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7]에서 내재적 직업가치는 취업준비행동과 전공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고, 또 다른 선행연구[8]에서는 외재적 직업가치가 진로개발준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특정 전공 대학생이 해당 분야에서 긍정적인 사회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직업가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는 직업 만족도가 다소 낮고 이직률도 높은 편으로 보고되며 특히, 초임 치과위생사의 이직률이 높은 것을 볼 때[9], 취업 전 고려했던 직업가치의 상당 부분이 실무에서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백성민 등[10]의 연구에서 치위생학과 학생과 치과위생사는 간호학과 학생과 간호사에 비해 학과생활 만족도, 사회적 인식 만족도, 진로방향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 치위생학과 학생 및 졸업자에게 진로방향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된 바 있다. 치위생 학문의 교육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양질의 치위생 활동을 하고 전문직업인 인식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교육 내용이 주로 실무적인 전공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직업가치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11], 직업적 탐색에 관한 진로프로그램 마련도 미비한 실정이다[12].

선행연구[13]에 따르면 내재적 가치가 중요할수록 능력개발지향의 취업준비를 하고 외재적 가치가 중요할수록 관계설정지향의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개인의 직업가치에 따라 취업준비활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로관련 프로그램의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가 무엇인지 조사 될 필요가 있다[14].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를 조사한 선행연구[5,14,15]에 따르면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직업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업가치 관련 교육이나 진로프로그램을 계획 할 때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된다.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는 성별, 학제, 학년에 따라 직업가치의 차이가 있었고,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는 성별, 연령이 직업가치와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방사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는 성별에 따라 내재적 직업요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지금까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직업가치와 전공만족도의 관련성[16,17], 직업가치가 전문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된 바 있다[11]. 그러나, 직업가치 각 항목에 중점을 두고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 중요도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내재적 직업가치와 외재적 직업가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재적 직업가치와 외재적 직업가치의 각 항목별로 중요도를 파악한다.

둘째,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재적 직업가치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재적 직업가치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전국 치위생(학)과 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설문 조사 시점에 치위생학과 재학생이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대상자 수 산출은 G*Power 3.1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 0.05 효과 크기 0.5, 검정력 95%로 설정했을 때 독립표본 T검정 (t-test)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인 194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신한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SHIRB-202202-HR-152-02)을 얻은 후 진행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제, 학년, 치과 임상실습 경험, 치과 아르바이트 경험, 희망진로를 조사하였다. 희망진로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공무원,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원,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18] 분석을 위하여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공무원·기업체·연구기관으로 재분류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학년은 1,2학년과 3,4학년으로 구분하였다.

2.2.2 직업가치

직업가치는 선행연구[19]를 참고하여 내재적 직업가치와 외재적 직업가치로 구분하였고, 각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를 5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점: 매우 중요하다)로 설문하였다. 내재적 직업가치 항목은 6개로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업무 난이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직업의 미래 전망, 자신의 적성과 흥미, 치과위생사 역량 발휘 가능성으로 구성하였다[19]. 외재적 직업가치 항목은 10개로 급여, 근무시간, 출퇴근 편의, 교육지원 복지혜택, 월차, 연차, 휴식 공간 보장과 관련된 복지혜택, 직장 분위기, 고용 안정성, 규모와 인지도, 감염관리체계, 성과제도로 구성하였다[19].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 중요도를 묻는 16개 설문 문항의 Cornbach's alpha 값은 0.873이었다.

2.3 통계방법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의 중요도(5점 만점)는 기술통계 후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t-test) 또는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을 위해 Scheffé로 다중비교를 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26.0 program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학제는 3년제가 51.5%이고, 4년제가 48.5%였다. 치과 실습 경험은 있는 경우가 53.1%로 많았고, 치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는 35.1%였다. 연구대상의 희망진로는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이 48.2%,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이 31.4%, 공무원, 기업체, 연구기관이 17.8%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4)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18	9.3
	Female	176	90.7
Course of colleges (years)	3	100	51.5
	4	94	48.5
Grade	1,2	97	50.0
	3,4	97	50.0
Dental practice experience	Yes	103	53.1
	No	91	46.9
Part-time dental work experience	Yes	68	35.1
	No	126	64.9
Hope career (N=191)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61	31.9
	Dental hospital and dental clinic	92	48.2
	Public officials, corporations, research institutes	38	19.9
Total		194	100

3.2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의 중요도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의 중요도는 Fig. 1 과 같다. 내재적 직업가치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4.55점), 직업의 미래 전망(4.52점)이었다.

외재적 직업가치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직원들 간의 인간관계 또는 직장 분위기(4.75점), 급여(4.69점), 월차, 연차, 휴식 공간 보장과 관련된 복지혜택(4.57점), 직장 안정성(4.55점), 근무시간(4.50점) 순서였다.

외재적 가치 항목 중요도의 평균점수는 내재적 가치 항목 중요도의 평균점수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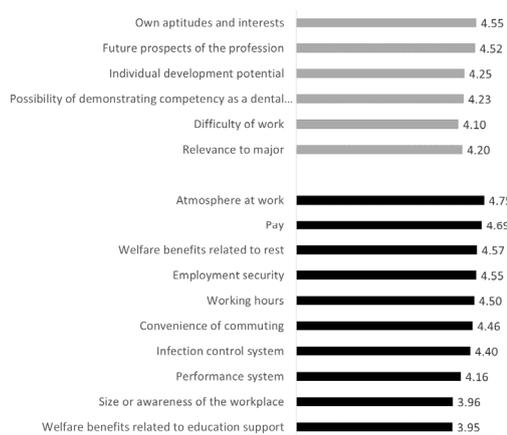


Fig. 1. Importance of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score)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재적 직업가치 중요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재적 직업가치 중요도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치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직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중요도는 4.65점으로 치과 아

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4.45점)에 비해 높았다 ($p<0.05$). 희망진로가 공무원 및 기업체인 경우는 ‘치과 위생사 역량 발휘 가능성’의 중요도가 가장 낮았다 ($p<0.05$).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재적 직업가치 중요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재적 직업가치 중요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라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월차, 연차, 휴식 공간 보장과 관련된 복지혜택(각각 4.60점, 4.28점)과 고용 안전성(각각 4.57점, 4.28점)의 중요도가 높았다($p<0.05$).

3년제 학생은 4년제 학생에 비해 출퇴근 편의(각각 4.56점, 4.36점)와 고용 안정성(각각 4.63점, 4.46점)의 중요도가 높았고, 1,2학년 학생(4.28점)은 3,4학년 학생(4.04점)에 비해 성과제도의 중요도가 높았다($p<0.05$).

치과 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출퇴근 편의(각각 4.55점과 4.38점)와 성과제도(4.28점과 4.04점)의 중요도가 높았다.

Table 2. Difference in importance of intrinsic work value (IWV)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IWV1	IWV2	IWV3	IWV4	IWV5	IWV6
Gender	Male	3.89±1.02	3.94±0.73	4.28±0.75	4.67±0.49	4.50±0.79	3.94±0.94
	Female	4.03±0.84	4.11±0.66	4.24±0.71	4.51±0.62	4.56±0.67	4.26±0.71
	p	0.514	0.305	0.850	0.289	0.738	0.087
Course of colleges (years)	3	3.99±0.87	4.06±0.68	4.25±0.69	4.51±0.64	4.52±0.70	4.22±0.73
	4	4.04±0.85	4.14±0.65	4.25±0.74	4.53±0.58	4.59±0.66	4.23±0.74
	p	0.672	0.413	0.959	0.804	0.508	0.894
Grade	1-2	4.04±0.87	4.08±0.67	4.24±0.72	4.54±0.61	4.52±0.72	4.28±0.76
	3-4	3.99±0.86	4.11±0.66	4.26±0.71	4.51±0.61	4.59±0.64	4.18±0.71
	p	0.678	0.747	0.841	0.726	0.463	0.329
Dental practice experience	Yes	3.98±0.85	4.10±0.66	4.23±0.70	4.51±0.61	4.56±0.67	4.16±0.71
	No	4.05±0.87	4.10±0.67	4.26±0.73	4.53±0.62	4.54±0.70	4.31±0.76
	p	0.549	0.985	0.765	0.884	0.806	0.150
Part-time dental work experience	Yes	4.13±0.90	4.18±0.69	4.32±0.68	4.65±0.54	4.54±0.72	4.28±0.77
	No	3.95±0.84	4.06±0.65	4.21±0.73	4.45±0.64	4.46±0.66	4.20±0.72
	p	0.165	0.227	0.276	0.034*	4.912	0.465
Hope career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4.11±0.80	4.23±0.62	4.31±0.72	4.59±0.59	4.66±0.66	4.31±0.67 ^b
	Dental hospital and dental clinic	4.07±0.80	4.05±0.70	4.16±0.70	4.47±0.60	4.51±0.67	4.33±0.66 ^b
	Public officials, corporations, research institutes	3.74±1.00	3.97±0.64	4.31±0.74	4.50±0.69	4.50±0.76	3.89±0.89 ^a
	p	0.072	0.129	0.351	0.478	0.380	0.005*

IWV1 : Relevance to major, IWV2: Difficulty of work, IWV3: Individual development potential, IWV4: Future prospects of the profession, IWV5: Own aptitudes and interests, IWV6: Possibility of demonstrating competency as a dental hygienist.
^a by t-test or one-way ANOVA(post-test Scheffé) for three groups($p<0.05$).

Table 3. Difference in importance of extrinsic work value (EWW)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EWW1	EWW2	EWW3	EWW4	EWW5	EWW6	EWW7	EWW8	EWW9	EWW10
Gender	Male	4.66±0.49	4.33±0.77	4.22±0.73	4.06±0.80	4.28±0.67	4.56±0.70	4.28±0.67	4.17±0.81	4.22±1.17	4.11±0.83
	Female	4.69±0.53	4.55±0.61	4.49±0.63	3.94±0.78	4.60±0.60	4.77±0.46	4.57±0.59	3.94±0.90	4.42±0.69	4.16±0.79
	p	0.874	0.162	0.095	0.542	0.034 ^c	0.228	0.047 ^c	0.308	0.487	0.453
Course of colleges (years)	3	4.69±0.56	4.55±0.63	4.56±0.62	3.96±0.79	4.59±0.62	4.74±0.50	4.63±0.58	4.05±0.89	4.35±0.76	4.23±0.78
	4	4.68±0.49	4.51±0.63	4.36±0.65	3.94±0.77	4.54±0.60	4.76±0.48	4.46±0.62	3.87±0.87	4.46±0.73	4.09±0.81
	p	0.904	0.664	0.032 ^c	0.832	0.589	0.829	0.046 ^c	0.162	0.316	0.206
Grade	1-2	4.72±0.49	4.57±0.61	4.55±0.61	3.96±0.79	4.58±0.64	4.75±0.48	4.62±0.59	4.01±0.86	4.34±0.85	4.28±0.78
	3-4	4.65±0.56	4.49±0.65	4.38±0.67	3.94±0.77	4.56±0.58	4.74±0.51	4.47±0.61	3.92±0.91	4.46±0.61	4.04±0.80
	p	0.343	0.426	0.075	0.855	0.814	0.884	0.095	0.466	0.247	0.038 ^c
Dental practice experience	Yes	4.72±0.49	4.57±0.61	4.55±0.61	3.96±0.79	4.58±0.64	4.75±0.48	4.62±0.59	4.01±0.86	4.34±0.85	4.28±0.77
	No	4.65±0.56	4.50±0.65	4.38±0.67	3.94±0.78	4.56±0.58	4.74±0.51	4.47±0.61	3.92±0.91	4.46±0.61	4.04±0.80
	p	0.204	0.285	0.016 ^c	0.218	0.742	0.996	0.134	0.711	0.498	0.038 ^c
Part-time dental work experience	Yes	4.72±0.51	4.56±0.66	4.41±0.72	3.91±0.88	4.62±0.55	4.75±0.50	4.54±0.58	3.99±0.78	4.46±0.66	4.19±0.72
	No	4.67±0.54	4.42±0.62	4.49±0.60	3.97±0.73	4.54±0.64	4.75±0.49	4.55±0.61	3.95±0.94	4.37±0.79	4.14±0.84
	p	0.499	0.651	0.409	0.632	0.396	0.957	0.969	0.795	0.460	0.687
Hope career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4.84±0.37 ^b	4.61±0.89 ^b	4.59±0.56	4.16±0.73 ^b	4.72±0.49 ^b	4.69±0.53	4.62±0.55	4.23±0.90 ^b	4.51±0.72	4.39±0.67 ^b
	Dental hospital and dental clinic	4.66±0.56 ^{ab}	4.58±0.54 ^b	4.57±0.62	3.86±0.76 ^{ab}	4.53±0.62 ^{ab}	4.79±0.43	4.51±0.62	3.83±0.82 ^a	4.38±0.66	4.05±0.79 ^{ab}
	Public officials, corporations, research institutes	4.47±0.60 ^a	4.16±0.86 ^a	4.29±0.80	3.79±0.84 ^a	4.39±0.72 ^a	4.74±0.55	4.50±0.65	3.87±0.93 ^b	4.29±0.93	4.03±0.94 ^a
	p	0.003 ^c	0.000 ^c	0.078	0.024 ^c	0.026 ^c	0.430	0.470	0.016 ^c	0.332	0.019 ^c

EWW1: Pay, EWW2: Working hours, EWW3: Convenience of commuting, EWW4: Welfare benefits related to education support, EWW5: Welfare benefits related to rest, EWW6: Atmosphere at work, EWW7: Employment security, EWW8: Size or awareness of the workplace, EWW9: Infection control system, EWW10: Performance system.

^aby t-test or one-way ANOVA(post-test Scheffé) for three groups(p<0.05).

희망진로에 따라 급여, 근무시간, 교육지원 복지혜택, 휴식지원 복지혜택, 규모와 인지도, 성과제도 중요도의 차이가 있었다(p<0.05).

4. 논의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외재적 가치 항목의 중요도가 내재적 가치 항목의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것은 공학 및 사회과학 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0]에서 내재적 가치의 중요도가 더 높게 나온 것과 차이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외재적 직업가치 중 직원들 간의 인간관계 또는 직장 분위기(4.75점), 급여(4.69점), 월차, 연차, 휴식 공간 보장과 관련된 복지혜택(4.57점), 직장 안정성(4.55점), 근무시간(4.50점) 순서로 중요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

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요인을 조사한 정은영과 김진경[11]의 연구에서 '직장 내 원만한 유대관계(4.69점)', '쾌적한 근무환경(4.63점)', '장기간 근무안정성(4.57점)', '높은 경제적 보상(4.40점)' 등의 직업가치가 높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하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비슷한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것을 볼 때, 치과 근로환경이 예비 치과위생사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치위생학과를 졸업한 면허취득자는 매년 약 5천명이지만 활동 치과위생사는 매년 약 2,000명 정도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21], 이것은 치과 취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치과위생사가 상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에 보고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치과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22]에서 치과위생사 수급의 어려움 정도가 10점 만점에 8.49점이었고, 특히 규모가 작은 치과의원일수록 치과위생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소규모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본 연구에

서 예비 치과위생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검토된 급여, 복지혜택, 직장 안정성 등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제공하고 직원 간에 존중을 중요시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치과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원복지제도는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23] 고용주 입장에서 인적자원관리를 위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체제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의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MZ세대)는 휴식제도가 보장받는 근무지를 더욱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근무기관 형태나 지역에 따라 연차 및 월차 제도, 출산 및 육아휴직 제공 여부는 차이가 보고되기 때문에[24]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마련과 고용주의 인식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성별에 따라 일부 외재적 직업가치 중요도의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휴식 지원 복지혜택(각각 4.60점, 4.28점)과 고용의 안전성(각각 4.57점, 4.28점)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직업 선택 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결혼과 육아 등을 더 고려하여 휴식 지원과 고용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을 더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경우는 급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한 부분이 이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치과 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출퇴근 편의(각각 4.55점, 4.38점)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선민과 김효진[18]의 연구와 황지영 등[25]의 연구에서 취업희망기관의 주된 선택기준이 복지혜택과 출퇴근 편의가 높게 조사된 바 있는데, 치과 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지역 접근성의 장단점을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희망진로가 치과의료기관인 경우(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은 4.61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은 4.58점)는 공무원과 기업체(4.16점)인 경우에 비해 근무시간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일반적으로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하루 평균 8시간씩 주 5일로 근무하며 야간진료는 1-2일로 보고된다[26]. 직업유형이나 근무지 형태에 따라 근무시간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보건직 공무원이나 기업체의 경우 특정 기간에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과 잔업으로 인한 야근이 종종 있다고 보고된다[27,28]. 치과의료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위

생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8]에서 보건직 종사자는 '정확한 근무시간' 이 직업만족요인인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사자는 잔업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데[29], 특히 20-30대 MZ세대는 명확한 출퇴근 시간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유연근무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30] 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기관이나 기업체는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근무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내재적 직업가치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4.55점), 직업의 미래 전망(4.52점)이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18] 치위생(학)과 입학 동기가 대부분 '취업이 잘 돼서(59.5%)'였으나 '적성에 맞아서(11.7%)'와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하여(12.6%)'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고, 다른 선행연구[25,31]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근거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경우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전공을 취업 중심으로 선택한 반면 전공 교과 내용,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로 방향 등에 고민은 다소 부족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치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직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중요도는 4.65점으로 치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4.45점)에 비해 의미있게 높았고, 희망진로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하는 내재적 가치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치위생(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치과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취업 분야를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진로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내적 가치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예비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성별, 치과아르바이트 경험, 희망진로에 따른 내재적, 외재적 직업가치의 차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편의추출 방법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생들의 지역과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직업가치는 개인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직업가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이것을 근거로 한 진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재적 가치 항목의 중요도가 내재적 가치 항목의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검토되었고, 직원들 간의 인간관계 또는 직장 분위기(4.75점), 급여(4.69점), 월차, 연차, 휴식 공간 보장과 관련된 복지혜택(4.57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2.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휴식 지원 복지혜택(각각 4.60점, 4.28점)'과 '고용의 안전성(각각 4.57점, 4.28점)'의 중요도가 높았다.
3. 치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직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고, 희망진로가 치과의료기관인 경우는 '치과위생사 역량 발휘 가능성'의 중요도가 높았다.
4. 희망진로에 따라 급여, 근무시간, 교육지원 복지혜택, 휴식지원 복지혜택, 규모와 인지도, 성과제도 중요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성별, 치과아르바이트 경험, 희망진로에 따라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한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치과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취업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이 자신의 직업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치과위생사의 근무기관에서는 예비 치과위생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직업가치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이 반영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A. Van den Broeck, J. Van Ruysseveldt, P. Smulders, H. De Witte, "Does an intrinsic work value orientation strengthen the impact of job resources? A perspective from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20, No.5, pp.581-609, 2011.
DOI: <https://dx.doi.org/10.1080/13594321003669053>
- [2] J. K. Martin, C. L. Shehan, "Education and job satisfaction the influences of gender, wage-earning status, and job values", *Work and Occupations*, Vol.16, No.2, pp.184-199, 1989.
DOI: <https://doi.org/10.1177/0730888489016002005>
- [3] B. Y. Choi, "The effects of intrinsic · extrinsic work value on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according to gender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1, No.1, pp.1-17, 2013.
DOI: <https://doi.org/10.35151/kyci.2013.21.1.001>
- [4] J. F. Kinnane, M. W. Pable, "Family background and work value orien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9, No.4, pp.320-325, 1962.
DOI: <https://doi.org/10.1037/h0045208>
- [5] M. S. Kim, "The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work value, career attitude maturity influence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1, pp.96-105,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1.96>
- [6] H. O. Ryu, E. B. Kim, "Classification of vocational college graduates' job valu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5, No.5, pp.127-147, 2016.
- [7] S. U. Oh, S. G. Lee, "The effects on the degree of job fit and first job satisfaction by the college students' job value typ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2, No.2, pp.1-19, 2009.
- [8] Y. H. Jeong, H. S. Kang, J. S. Kim, "Employment preparation, work valu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Vol.13, No.1, pp.71-88, 2012.
- [9] H. K. Yun, "Effect of newly appointed dental hygienists' job stress on organization effectivenes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2, pp.442-449,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2.442>
- [10] S. M. Baek, K. H. Song, J. S. Park, J. Y. Bae, W. S. Jeong, et al., "Comparison of major and job satisfaction of students and graduates in dental hygiene and nursing",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3, No.4, pp.378-385, 2013.
- [11] E. Y. Jeong, J. K. Kim, "A study on work value factors and professional attitude factors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par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3, No.3, pp.439-448, 2013.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3.13.3.439>
- [12] Y. S. Cho, "Comparison of curriculums of dental hygiene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5, No.4, pp.251-258, 2005.
- [13] T. G. Lim, W. S. Choi, "A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n the effect of work value on turnover intention-focus on food-service industry newcomers less than 1 year",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35, No.3, pp.37-56,

2016.
DOI: <http://dx.doi.org/10.29214/damis.2016.35.3.003>
- [14] K. H. Park, H. H. Yoon, J. Yim, "Medical student perception of physician values in practice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referred medical specialty field",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26, No.4, pp.309-319, 2014.
DOI: <https://doi.org/10.3946/kime.2014.26.4.309>
- [15] H. S. Kim, "A study on the types of work values of radiologic technology students".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30, No.6(3), pp.271-280, 2007.
- [16] J. H. Ji, S. E. Heo, "The effects of work value and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6, pp.183-193, 2019.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6.183>
- [17] S. N. Lee, S. K. Eun,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value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8, pp.5304-5313,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8.5304>
- [18] M. S. Lee, H. J. Kim, "Study on employment preference and employment perception and job value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graduat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5, pp.342-349,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5.342>
- [19] Y. G. Joo, S. Y. Han, "Investigating the impact on job satisfaction of the first job: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with school support and major programs, intrinsic work value and extrinsic work valu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Vol.18, No.2, pp.53-75, 2014.
DOI: <https://doi.org/10.36907/krivet.2015.18.2.53>
- [20] Y. K. Lee, K. H. Kang, "The analysis about work value of undergraduates according to major and gender: In focus of engineering and social science department",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16, No.1, pp.27-34, 2013.
DOI: <https://doi.org/10.18108/jeer.2013.16.1.27>
- [21] Y. M. Kim, S. K. Kim, S. U. Jin, W. S. Won, G. C. Jeong, 2020 year book of the Korea dentistry, Korean Dental Association Health Policy Institute, Korea, pp.165-166.
- [22] K. Y. Lee, J. E. Jeon, D. H. Han, "The difficulty in the recruitment of dental staffs by size of dental institu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Vol.59, No.11, pp.618-627.
DOI: <http://dx.doi.org/10.22974/jkda.2021.59.11.001>
- [23] H. N. Le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dental hygiene's job effic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8, No.2, pp.8-15, 2020.
DOI: <https://doi.org/10.33615/jkohs.2020.8.2.8>
- [24] H. S. Kang, Y. R. Jung, Y. Y. Cho, "Survey on the working environment of national clinical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8, No.6, pp.863-878, 2018.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80074>
- [25] J. Y. Hwang, S. Y. Uang, G. Y. Son, B. Y. Won, S. H. Oh, "Employment preparation and job preference of dental hygiene major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3.4, pp.677-684, 2013.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3.13.4.677>
- [26] E. J. Oh, S. J. Hwang, "Comparison of the working conditions of dental hygienists using data from online job site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7, No.6, pp.501-507, 2017.
DOI: <https://doi.org/10.17135/jdhs.2017.17.6.501>
- [27] H. M. Son, H. R. Yang, B. H. Park, "Experiences of public officials for the covid-19 response in the community health cent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32, No.4, pp.578-592, 2021.
DOI: <https://doi.org/10.12799/jkachn.2021.32.4.578>
- [28] S. H. Jeong, S. H. Nam, J. H. Park, E. J. Shin, N. R. Yu, et al., "A study on career competency, task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Focusing on public officials, public institution workers, and research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8, No.4, pp.477-488, 2018.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80043>
- [29] R. Fontinha, S. Easton, D. Van Laar, "Overtime and quality of working life in academics and nonacademics : The role of perceived work-life bal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Vol.26, No.2, pp.173-183, 2019.
DOI: <https://doi.org/10.1037/str0000067>
- [30] H. R. Song, E. J. Kang, "Work and life balance of working single-person households: focused on unmarried 20-30 generation",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25, No.4, pp.55-70, 2021.
DOI: <https://doi.org/10.22626/jkfrma.2021.25.4.005>
- [31] S. Y. Jang, "Study about vocational consciousness and job value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graduat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5, No.3, pp.265-271, 2015.
DOI: <http://dx.doi.org/10.17135/jdhs.2015.15.3.265>

박 보 영(Bo-Young Park)

[정회원]



- 2018년 2월 :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석사)
- 2021년 2월 :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치위생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겸임교수

<관심분야>

임상 치위생학

윤 미 숙(Mi-Suk Yoon)

[정회원]



- 2005년 2월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 2018년 8월 ~ 현재 : 치위생정책 연구소 대표

<관심분야>

두경부 해부학, 예방 치과학